

### 용산에 활기를 더하다

\*동영상

사람들은 용산하면 전자상가를 떠올린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자제품 구매 방법의 다양화로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하는 사람의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더 이상 전자제품 판매라는 한 가지 목적만으로는 이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을 수 없다.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의 경우 과거에 전자상가로 유명했으나 전자제품 판매 부진이 이어지자 일본의 주력 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과 결합하여 현재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용산 전자상가에 한국 대표적 문화산업인 한류를 결합시켜, 직접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한국의 인기 드라마, 영화 등의 세트장을 재현하고, 그곳에서 드라마,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실제로 사용된 전자제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게 한다. 남녀노소 모두 함께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전자제품 구매까지 가능한 도심 속 쇼핑문화관광지다.

